

■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규제·관리 보다 지원방안 모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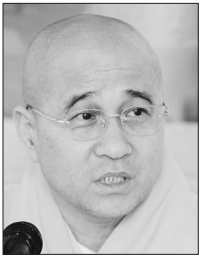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 활성화
를 위해 종단에서 추진하는 해외특별
교구 설립을 앞두고 총무원 총무부 주
최로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
다.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스님, 국
제교류위원 진월·허운스님, 교육원 연
수국장 광전스님, 우즈베키스탄 자은
사 조주스님이 참석했다. 사회는 중앙
종회의원 정범스님. 이밖에도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스님, 박용규 총무차장,
홍민석 국제팀장, 정석원 종단 변호사
등 실무자들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
외사찰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님과 사찰들을 지원하는 방
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
성했다. 총무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
견을 수렴해 개정된 입법예고안을 마
련할 방침이다. 9월에는 미국동부지
역 간담회를 개최해 여론을 청취한다. 다
음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
론회’의 참석자 발언 요지이다.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 해외
특별교구 설립은 종단 주요사업이고,
제33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
다. 토론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비롯
한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발
견적인 방향으로 해외특별교구 설
립을 추진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니 좋은 의견을 제
시해 달라.

정우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 미국, 인도, 티베트 등 해외에
있는 8곳의 한국사찰과 인연을 맺어 지
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다. 그 만큼 해외불교는 어려움이 많
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총무부장을
(담당직) 해외특별교구장으로 했
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해외
특별교구를 신설할 때 기존 교구본
사의 말사로 등록된 해외사찰의 교
구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해외사무소는 ‘연락 사
무소’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종
단이 해외사찰을 도와주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동진스님(뉴질랜드 남국정사) =
해외특별교구를 총무원 총무부에
둔다는 것은 정우스님 말씀에 동
감한다. 그 래야 관리가 되고 일관
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미
국은 지역별(동부,



영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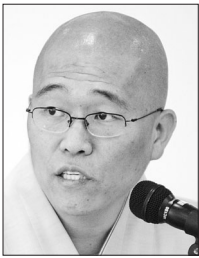
정우스님



동진스님



진월스님



정범스님



허운스님



조주스님



광전스님

기존 교구본사 등록 사찰 교구확정 방안
파견승 자격·해외거주승 인센티브
있나
“담당 부서는 총무부 적합” 토론
활발

가톨릭은 파견권·소환권도
있는데...
지원책부터 마련, 해외-총무원
연계하자
“의견수렴해 개정 입법예고안
마련할 것”

서부, 남부)로 구분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별로 세분해야 한다. 해외에서
법인 설립은 쉽지 않다. 입법예고안
을 보면 총무원이 국내법에 의
존해서 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예고안의 5 조3항에서 ‘법
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를 삭제해야 한다. 파견승의 선
발요건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외에 있는 스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외
사찰은 포교의 인적자원이
광장히 빈약하다. 1년에 한 번
씩 파견승을 선발해 종단 등록 사
찰에 파견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이다. 해외사찰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 해외
특별교구 설립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사회부 국
제팀을) 국제국으로 확대하거
나 국제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해외포교 강화

를 위해 특별교구를 설립하는 것
과 국제부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해외교구장을 총무부장이
검직하려면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
있는) 스님들을 우대할 수
방안을 종단에서 마련해야
한다.

진월스님(국제교류위원) = 해외
특별교구와 국제부가 모두
필요하다. 해외특별교구에서
는 해외 한국사찰을 지원
하고, 국제부는 교구가
담당하지 못하는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
누야 한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해외에 있는 스
님들에게 자
금심이나 소
속감 공
심력 등 득(得)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버릴 수
없지만, 경
과조치나 예
외조항을 두는
유동성을 발
휘하는 것도
방안이다.

허운스님(국제교류위원) = 총무부
가 기존의 업무도 많은데, 국제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해외특별교구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거
론되는 분(종단 소임자)들이
업무가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
질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장
을 총무부장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전스님(교육원 연수국장) = 입
법 예고된 해외특별교구법의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해외 한국사찰
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관리하기 위한 법안
인지 봐야 한다. 해외교구로
하면 의무와 권한, 책임이
따라온다. 입법취지가 해외
한국사찰의 지원과
활성화에 있다면, 특별교구
보다는 오히려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조주스님(우즈베키스탄 자은사)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총무원에서
발급받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총무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스님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우스님 의견
을 존중한다. 총무부에
해외업무를 전담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 (현 상황의) 국
제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진우스님(미국 보스턴 문수사) =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방청객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법
이란 것은 제정되면
시행돼야 하는데,
재산권은 법이 제
정되어도 시행
못할 수 있다. 결국
사람, 즉 스님의
문제이다. 총무원
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조계종) 스
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가톨릭은 파견
권과 소환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지원(방
안을 담은)법
부터 먼저
활성화하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총무원
과 연계가 된
후에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해외
에 있는 당사자
에게는 구속
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반발하게 하는
법이란 생각이
든다.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하면서
시행했으면
한다.

총무국장 종민스님 = 오늘
제기된 고
견을 참조하여
좋은 해외
특별교구법
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9월 중에는
미국에서
간담회가
있다. 간
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
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5기 취임 하루 전인 지난 6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20여 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오세훈 서울시장 조계종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 “서울 시정 더욱 발전” 당부

민선 5기 서울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오세
훈 시장이 취임 인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6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20여 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도와주시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며
합장을 하고 인사
했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도와주지
못해 표가 적게 나
온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
님은 “어찌됐든,
(투표개표일) 아침
까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돼
걱정을 많이 했다.
(서울시장 선거
에서) ‘폐분물 나
는 교훈’을 받았으
리라 생각한다. 민
심(民心) 위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면서 시민을 위
한 시정(市政)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여소야대(與小野大)
로 구성된 서울시
의회를 염두에 두고
“지난 4년간
시정을 하기에
편했지만, 이제
는 (서울시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할
것 같다”고
격려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총
무원장 스
님은 문수
스님의 범
국민추모
제 행사를
서울시청
앞 광장
에서 개최
할 수 있
도록 협조
를 당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
해 오세
훈 시장
은 “아직
실무진
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
했다”며
서도 공
경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조계종’ 불법도용, 각별한 주의 요구



최근 한 불자로부터
조계종 명칭 불법도
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통의
제보전화가
접수됐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불자는
본지로
전화를
걸어와
“지인에
소재로
집 근처
사찰을
찾게
됐고, 주
지 스
님의
거듭되는
권유로
재를
수차례
지내
결국
7000만
원이
넘는
기도비
용을
지출하
게 됐다”
고 하
소연
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해당
사찰을
찾았을
때 주
지 스
님이
‘조계
종 스
님’ 이
라는
말을
듣고
안
심하
고 기
도를
올렸
다
고 한다.
그러
나 시
간이
지날
수록
스
님은
“조
상이
노
한 것
같다”
며 지
속적
으로
재를
올릴
것을
권하
며 기
도비
로 거
액을
요구
했다.
결국
그
는 3
년 동
간 기
도비
로 만
7000
만
원
을
탕
진
했
다.
최근
조
계
종
에
해
당
스
님
의
승
적
을
확
인
하
였
지
만,
종
단
스
님
이
아
닌
것
으로
확
인
돼
“사
기
당
한
것
같
다”
며
본
지
로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전화에
억울함
을 호
소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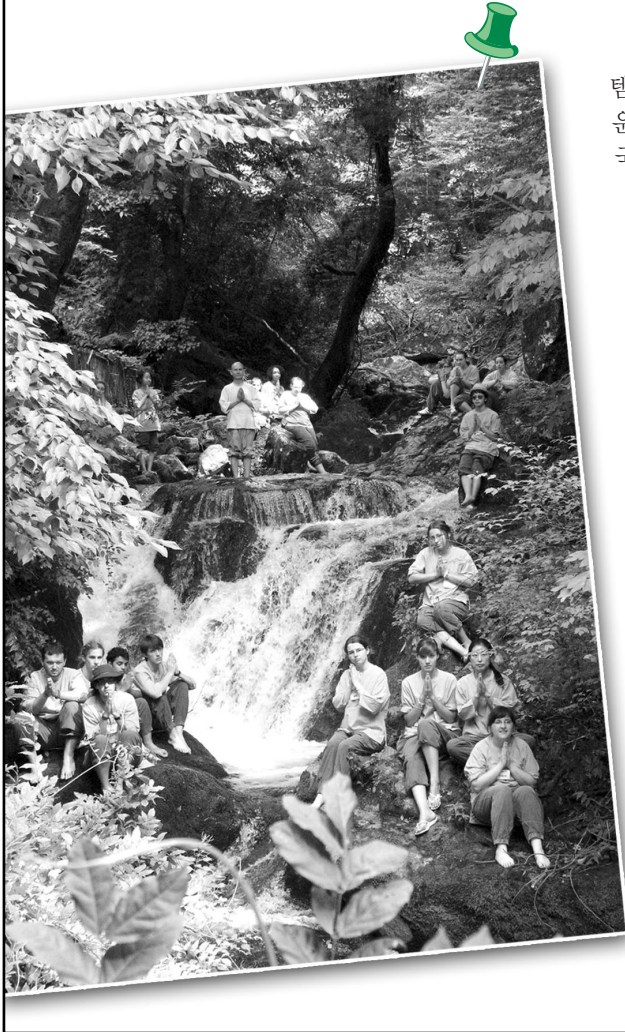
조계종
불법도
용은 종
단 차
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
터 문
제로
제기
됐던
사안
이다.
때문
에 최
근 조
계종
총무
원
에
서
도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이
아
닌
종
단·
단
체
나
사
찰
또
는
개
인
이
‘대
한
불
교

조계종’
의 유
사명
칭과
문
장
을
불
법
도
용
해
불
자
와
국
민
들
에
게
혼
란
을
주
는
사
태
가
발
생
하
고
있
다
며
주
의
를
촉
구
했
다.

하
지
만,
본
지
에
제
보
된
것
처럼
아
직
도
전
국
각
지
에
서
조
계
종
불
법
도
용
으
로
인
한
피
해
사
태
가
심
심
치
않
게
발
생
하
고
있
어
안
타
갑
다.
종
단
은
물
론
각
교
구
본
사
에
서
도
조
계
종
을
사
칭
해
상
랑
한
불
자
들
을
몰
리
는
일
이
없
도
록
관
심
을
기
울
여
야
하
다.
무
엇
보
다
불
자
스
스
로
가
‘정
법’
에
대
한
확
고
한
믿
음
을
잃
지
않
고
혹
세
무
민
에
배
지
지
않
는
것
이
중
요
하
다.
사
부
대
중
의
각
별
한
주
의
가
요
구
된
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갑사

공주 문화유적관람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2010년 대전,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주시 후원으로 갑사의
템플스테이와 공주 문화 유적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2박3일 여름 수련회 일정 중에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
국립박물관,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중인 석장리박물관을 관람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1차 : 7월23일~7월25일(금~일, 2박3일) 40명(초등 4~6학년, 중학생)
2차 : 7월30일~8월 1일(금~일, 2박3일) 40명(가족과 함께)
3차 : 8월 6일~8월 8일(금~일, 2박3일) 40명(일반)

□ 참가비 : 어린이 50,000원 / 중·고등학생 60,000원 / 일반 80,000원

□ 참가방법

- 1) 신청 - 갑사 홈페이지(계통산 갑사:www.gapsa.org)에서 접수
- 선착순 접수마감(운행차량이 없으므로 개별 도착)
- 2) 입금 - 농협 457017-51-056540 예금주:갑사
- 3) 도착시간 - 오후 2시30분

□ 준비물

- 1)빗줄, 수건, 운동화, 모자
- 2)초등, 중학생은 수련복 없이 상의(면티)만 지급되므로 여벌운동복

■ 1박2일 템플스테이 ■

- 수행형 템플스테이 - 매일 둘째 넷째 주말(토 일)
- 단체일 경우 프로그램, 일정(주중) 조절가능
- 휴식형 템플스테이 - 주중가능(누구나) 전화접수
- 동참금 : 어린이 2만원, 청소년 3만원, 일반 4만원
- * 문의사항 - 갑사 종무소(041)857-8981~2

☎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갑사

www.baekyangsa.org

백양사 여름수련회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천년고찰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2010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회차	날 짜	프로그램명	참가비	인원	비고
1차	7월22일~ 25일	참나를 찾아서	12만원	60명	청소년이상
2차	7월28일~8월1일	참나를 찾아서(선수련)	15만원	60명	청소년이상
3차	8월 5일~ 8일	참나를 찾아서	12만원	60명	청소년이상
4차	8월 11일~ 15일	참나를 찾아서(선수련)	15만원	60명	청소년이상
어린이여름 불교학교	7월26일~ 28일		8만원	80명	초등학교 3학년~6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문 의 : 061-392-0434